



'농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농업인

## 농약안전사용 관심 크게 늘어

지나친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업인 부담으로 작용  
언론의 민감·지나친 농약검출 보도, 생산자 피해로 귀결

홍보부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22.7%가 적합 농약 선택을, 22.6%가 한층 강화된 잔류농약기준이라고 답해 농약사용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2%는 소득수

준 향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알고 있으며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검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79%가 민감하거나 지나치다고 답변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자의 피해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약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지킨다는 답변이 78%이고 보통이라는 답변이 21%로 나타나 농업인의 대부분이 농약 병에 적힌 사용방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제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28%에 그쳐 효과가 뛰어난 농약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한편 가락시장의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가 가락시장에서의 잔류농약 검사 시행사실을 알고 있으며 부적합품 출하시의 불이익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올바른 농약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지도를 고찰, 생산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개선에 활용코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가락시장 직접 출하자 및 단위농협 조합원,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등 7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

### 안전사용 관심 커, 홍보 지속되어야

조사에 따르면 농약사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50% 이상이 적합농약 선택과 강화된 잔류농약기준이라고 답해 5년이하의 영농경력자가 답한 22%의 농약값이 비싸다는 의견을 훨씬 상회했다. 농약검출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79%가 너무 민감하거나 지나치다고 답해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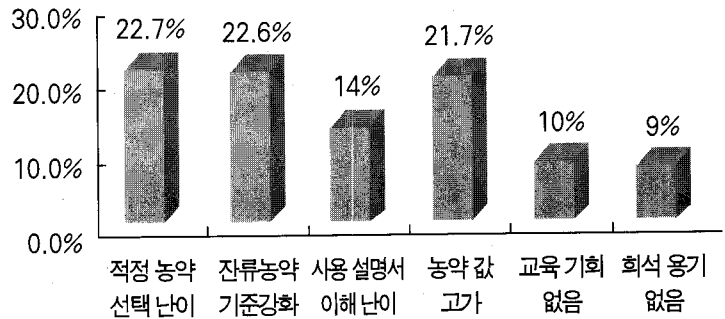


그림 1. 농약 사용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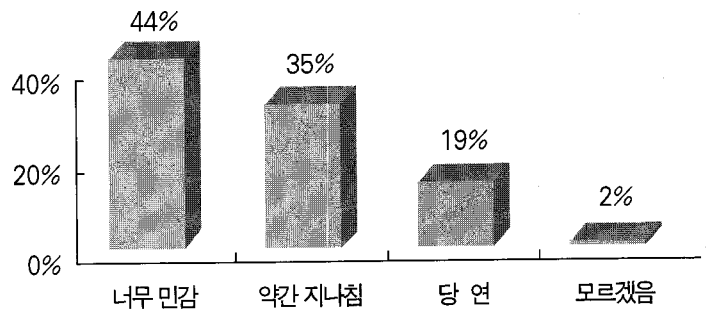


그림 2. 농약 검출에 대한 언론 보도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일간지 및 전문지를 활용, 농약검출 보도에 대한 생산자 시각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약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답한 생산자 의견이 92%로 나타나 소비자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소 농약안전사용에 대해서는 85%가 관심 있다고 답변하여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의식이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15%의 생산자

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방제효과 제고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농약사용에 대한 정보는 농약판매상을 통해 얻는다는 답변이 33%로 가장 높았으나 농협을 통해 얻는다는 답변도 31%에 이르러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는 농약판매상과 농협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약구매처를 보면 44%가 농약판매상을 통하여 구입한다고 답변



했으며 38%가 단위농협에서 구입한다고 답변하여 정보획득에 대한 설문은 뒷받침 해 주었다. 그러나 이동 판매상을 통해 농약을 구입한다는 의견도 11%에 달해 부정·불량농약 구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농약 병에 적힌 사용 방법 준수에 대한 설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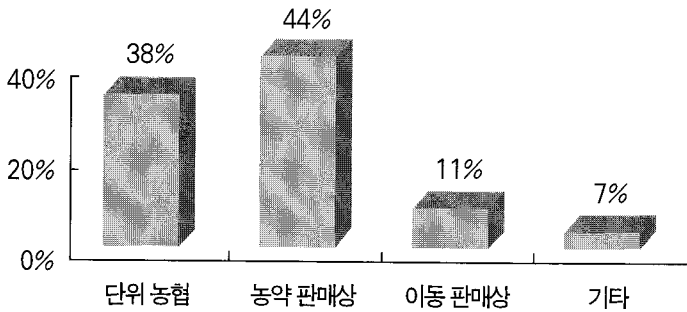


그림 3. 농약 구매처별 점유율

78%가 잘 지킨다고 답변한 반면 무시한다는 답변은 1%에 그쳐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적은 답변은 젊은 층이거나 영농경력이 짧은 생산자들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방법대로 살포할 경우 방제효과에 대해서는 28%의 소수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72%는 방제효과

가 크지 않거나 미비하다는 의외의 답변을 함으로써 작목별로 효과가 뛰어난 농약의 지속적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98년도 부적합 출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였던 방제효과 미비보다 감소한 18%로 나타나 다소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약사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파종

기(3~4월) 및 수확기(9~10월)보다 역시 여름 장마철 등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은 5월~8월의 영농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안전사용교육, 참여 높고 효과 있어

출하전 농약검사기관으로 부터의 검사 경험에 대해서는 출하할때마다 산지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11.2%를

포함, 가끔 검사를 받는 경우와 한번 이상 받은 경우가 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지에서의 농약검사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답변이 46%에 불과해 농약잔류 검사기관의 농약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생산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85% 이상이 1회 이상 받는다고 응답하여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었으나 관계기관에서의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용교육의 실제 도움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70%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었다. 또 가락시장에서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 중 87%의 생산자 대다수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하농산물에서의 잔류농약 검출시 1개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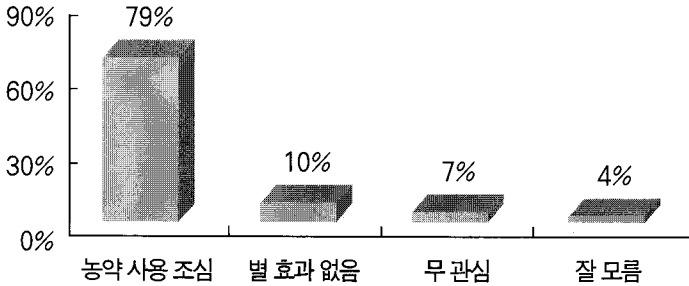


그림 4. 출하중지 조치에 대한 소견

출하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79%의 생산자들이 농약사용에 조심하게 된다고 답해 잔류농약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및 가락시장 직접 출하자가 농약사용에 조심한다는 답변이 9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단위농협 출하자는 72%만이 조심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현재도 홍보, 올바른 사용 유도해야**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1개월 출하중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농산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76%의 응답자들은 남은 물량을 폐기처분 한다, 8%의 응답자는 사료 등으로 용도전환 한다고 밝혀 98년도

조사때 보다 인식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3%의 응답자는 타 시장으로 출하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농약을 살포한 후 안전한 출하시기 보다 앞당겨 출하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56%의 응답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여 높은 안전의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일손부족이나 농산물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조기 출하했다는 답변이 36%가 나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모르는 경우의 8% 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안전사용 교육은 안전사용에 대한 단순한 교육보다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미 준수시의 형사고발 등 행정적 처분에 대

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이나 영농경력 10년 이하 계층에서는 가격이 높아서 출하시기를 앞당겼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에 조사한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안전한 농약사용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 중에서도 생산자들이 재배작물에 적합하게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대두됨으로써 농약업체의 좀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농약품목수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는 그간의 의견과는 상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또 잔류허용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마련된 각종 안전사용교육을 널리 홍보하여 생산자들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정보**